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0년 7월 12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시 119:105-107)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교육주일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온전한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36장 다같이

1.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후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2.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였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3.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5:43-48 인도자

-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설 교 “너희도 온전하라”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95장 다같이

1.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2.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3.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4.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5.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3-48)

마태복음 5:33-48절은 점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맹세 금지에서 보복 금지로, 그리고 원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랑에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높은 단계의 의(義)인 ‘원수 사랑’을 살펴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43절). 이것은 율법의 직접 인용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신념이 반영된 율법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문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19:18)입니다. “네 자신과 같이”와 “원수를 갚지 말며”를 생략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를 추가했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것은 인간 본능으로서 가르치거나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욕구와 본능을 통제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대립 명제(對立命題)를 제시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44절). 이것은 최상급 계명으로서, 성도가 제일 성도다워질 조건입니다. 기도와 사랑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시109:4). 보복 금지가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원수사랑은 적극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를 향한 원수의 적의(敵意)는 사랑 결핍의 표현입니다. 내 원수만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사랑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 ‘이웃’을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원수까지도 포함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외국인, 동성애자, 죄인, 자연생태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인이나 선인에게 누가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자기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범함과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의 당위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형제에게만 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오 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덤으로 오 리를 더 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촉구하면서, 미움은 미움을 증진하지만,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창조적이면서 구속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즉 사람 본연의 모습, 회복되어야 할 일그러진 하나님의 작품을 본 것입니다. 랄프 루터는 “원수를 사랑함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주면, 변화가 옵니다.

마태는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상급은 충성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텔레이오스)은 목적(텔로스)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聖潔)이요 기독교인의 완전(完全)입니다.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